

하박국 강해 (3)

힘을 신으로 삼는 자들 (하박국 1:2~11)

장봉문 목사

📖 하박국 강해 3

□ 하박국서의 구조

▶ 1:1 서론

▶ 1:2~4 선지자의 첫번째 질문(탄식)

1:5~11 첫번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

▶ 1:12~2:1 선지자의 두번째 질문(탄식)2:2~4 두번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

▶ 2:5~20 다섯가지 화의 선포

▶ 3:1~19 하박국의 기도(노래)

□ 선지자의 두번째 질문이 함의하는 기본적 맥락

→ 하나님의 첫번째 대답을 기반으로 함

→ 첫번째 질문과 두번째 질문의 공통점 :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첫번째 질문) 폭력이 난무하는 시대에 침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탄식

첫번째 대답)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서 힘과 폭력을 정의로 삼는 사람들을 심판할 것이다!

Q. 하나님의 첫번째 대답이 선지자의 두번째 탄식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는 무엇인가?

1:13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시므로 악을 차마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차마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 13절이 말하는 악인은 누구인가? → 바벨론 사람

즉, 선지자가 규정하는 악인이 이스라엘 내부의 사람들에서 바벨론 사람으로 **전환**되고 있다.

Q. 선지자가 하나님의 첫번째 대답을 듣고서, 거기에 수긍하지 못하고 더 탄식하는 이유는?

→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더 악한 사람이 더 큰 폭력을 자행하도록 하시는 것이 합당한 일인가?

→ 사실상 폭력의 주제만 달라질 뿐, 폭력의 범위와 영향력은 훨씬 더 커짐, 따라서 하나님의 대답은 "폭력의 확장"

□ 폭력이 확장된 결과

1:14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 "다스리는 자"

→ 창 1:28 하나님이...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 원래는 다스리는 존재로 창조되었으나, 이제 바벨론의 폭력에 의해 다스림을 받는 존재로 전락 (**창조질서의 파괴**)

1:15 ~ 17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이까"

▶ 바벨론의 신 "마르둑" → 그물로 상징되는 신

▶ "**그물**"과 "**투망**"이 의미하는 바는?

→ 바벨론이 힘과 폭력을 사용하는 궁극적인 목적 : 그물과 투망으로 대표되는 물질적 풍요를 향한 끝없는 갈망

→ 이스라엘의 현실: 물질적 풍요를 향한 끝없는 갈망으로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는 바벨론과 마주하고 있음

☞ 생각해볼 문제

오늘날 우리는 욕망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심지어 신앙의 영역에서도?

욕망의 대처는 "감사, 자족"하는 마음

□ 하나님의 두번째 대답

2:3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 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 "묵시" → 하나님의 말씀

▶ 구약적 "**종말**"의 의미 → 시간 혹은 세상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로 이루어지는(성취되는) 시간

▶ 3절의 핵심

☞ 바벨론이 더 큰 악과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게 현실이지만 / 하나님의 말씀(정의와 공의)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비록 더디게 보이더라도, 그 말씀(정의와 공의)이 땅 가운데 반드시 응할 것을 확신하고 **기다리라**는 의미

Q. 기다리라?

→ 손 놓고 있어도 된다? **No!** 세상이 불의하고 폭력이 난무하고 욕망이 가득하고 정의가 굶어져도 우리는 성취될 말씀을 신뢰하며 먼저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의미! 즉,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인식하는게 중요!

🔑 생각해볼 질문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방관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2:4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 의인의 특징

→ 악인과 달리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들과도 올바른 관계(공의)를 맺음

→ 세상의 악함과 폭력, 힘의 원리, 욕망의 원리가 작동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 로마서와 구분되는 점

로마서: 믿음으로만 얻는 구원의 맥락

하박국: 불의한 시대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충성스러운 삶의 맥락

Q. 우리는 너무 개인의 구원에만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 "담장을 넘는 교회" 가 놓치지 말아야 할 방향

→ 진정한 종말의 삶이란?